



성도의벗 3  
1983



18



28



39

# 성도의 빛 3 1983

표지의 사진 설명: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전세계의 각국에서 온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오른쪽 조금 큰 사진 중앙: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좌: 메리언 알 보이어 자매(제1보좌), 우: 셸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사진 촬영: 엘론 케이 린스코우턴).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판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톨니  
고든 비 헝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교문

엠 러셀 발라드 이세  
로렌 시던  
랜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에프 앤지오 부쉬

## 차례

회개의 복음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
찰흙으로 만든 작은 양 .....	러슬 오즈먼드.....	8
우리의 결혼을 구해 낸 비결 .....	주디스 롱.....	10
질 의 응답 .....		14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담...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8
네 부모를 공경하라.....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24
물모나드 .....		27
코디의 꿈 .....	리차드 엠 톰니.....	28
봉사의 달콤한 맛.....	재니트 토마스.....	32
“특별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가요? .....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35
심심풀이 .....		38
내 친구 .....		39
트로피 .....	베티 루 멜.....	42
해의 소식 .....		46
88회 생일을 맞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		50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애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독 카드/지부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2호, 제19권 제3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51KO PRINTED IN SEOUL, KOREA 3/83 International magazine

© 198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 회개의 복음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복음은 전체적인 복음 계획의 중심인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성장의 율법이며, 발전의 원리이며, 행복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성심을 다하여 충분히 회개하면 용서로 보상받게 된다는 분명한 약속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 : 28)고 구세주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원리가 영화로운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을 변화시켜 주님의 훌륭한 신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시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확증이 우리들의 회개를 전제로 경전에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분

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생과 영생에서 기쁨과 진리와 완성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마지막 율법의 경륜의 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새롭게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 사람에게 회개 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계명을 지키라. 또한 내 계명에 좇아 나의 일이 성취되도록 노력하라.”(교성 18:14)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교성 18:14)

초기의 성도들이 미주리로 갈 때, 주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전도하며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간증하라. 부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방문하여 회개하게 하라.

“세상의 주민들이 회개할 마음이 있거든 저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라.”(교성 58:47-48)

오늘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처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우리의 생을 바꾸어야 할 날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할 경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가져 오는 이 원리에 대하여 개인적인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의 원리가 자신의 생활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

---

회개는  
주님의 성장의 율법이며,  
발전의 원리이며,  
행복을 위한 계획입니다.

---

다. 이와 같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생활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외침은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르익어 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음성을 높이는 것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적은 음흉합니다. 그는 교활합니다. 그는 선한 인간들에게 곧바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교활하게 반쯤 진리를 속삭여 그들이 꼼짝 못하고 그의 포로가 되게 만듭니다.

옛날의 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새롭게 말씀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이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너희는 함께 모여 사랑으로 생활하라.

“너희가 받은 바, 경전 중에 율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나의 교회를 다스리는 율법으로 삼을지니라.

“이에 따라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계속하여 행치 아니하는 자는 형벌을 받으리라.”(교성 42 : 18-60)

성적인 범죄는 우리 세대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큰 범죄에 속합니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영화, 텔레비전, 대중 음악, 서적, 잡지 등은 모두가 성적인 범죄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느 것도, 결혼 성약조차도 거룩하지 않다고 진파하는 듯합니다. 관능적인 여인이 여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정당화되며, 탐욕의 영웅은 그릇된 일을 저질러도 정당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 5 : 20)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악을 행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바꿀 수 없고 또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사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며, 우리들에게처럼 하나님의 온갖 계명이 주어졌으면서도 범법하며 저의 시험의 날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한 자들이 참혹하게 되리도다.”(니파이서 9 : 27)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면, 먼저 잘못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죄책감은 마음과 영혼, 때로는 육신에까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진 채로 생활하려면, 범법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양심을 마비시키거나 정신적인 평온으로 감수성을 둔화시켜 그들의 범법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

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감각하게 되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여, 최후에는 용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완전히 정직해져서 아무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펴하지 않고 자기 행위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회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 하거나 그 심각함을 합리화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인정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애써 작게 보이게 하려 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에 당면하여 스스로의 생활을 변경시켜 보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회개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나, 차차 그 결과를 경험하면서 무한하게 바람직한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린도후서 7:10)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었음을 이해하여 깊이 후회한다면, 우리는 죄의 효험을 없애게 되는 과정을 따르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과정에서의 두번째 단계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43) 그리고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8:11)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회개의 전체 과정에서 다 중요

한 것이지만,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죄의 행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과정에서는, 흔히 그 범 죄와 관련된 사람, 장소, 사물 및 환경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극히 기본적인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뉘었던 여건을 좋은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과 그의 과거의 죄를 격리시키는 담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다음 회개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은 중죄는 감독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노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령을 다하여 간구”(이노스서 4절 참조)하여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때에 감독에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계획을 세워 성장과 발전의 위대한 법칙인 회개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일관성있고 질서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이스라엘의 판사”(교성 58:17 참조)라는 신권 성임 또는 직분을 받는 감독이나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감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상의 친구가 됩니다. 그는 주님의 영을 받아 우리의 생활을 축복해 주며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인비로 처리해 줍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며,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위대한 보상의 원리가 따르게 됩니다. 가능한 한 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

도록 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훔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가 거짓말이나, 악담으로 해를 입혔으면, 진실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살인이 것처럼 큰 죄가 되는 것은 살인자가 빼앗은 생명을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보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훔친 손걸도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회개한 사람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인이……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에스겔 33 : 15)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 주는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교성 1 : 31-32)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 또 끝까지 충실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교성 6 : 13)

만일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려 노력한다면, 그 외의 선한 행위는 회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 : 16, 18, 20)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생각과 이상과 표준과 행위를 완전히 변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삼서 12 : 48)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사람이 십일조 내기를 게을리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기타 할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는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보와 완성의 법칙인 회개의 법칙의 이러한 기본적인 면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응하는 정도를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변형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 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간증을 전하는 만큼 우리의 죄가 더욱 용서받게 된다고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교성 84 : 61 참조)

회개는 영화롭고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전세계 역사에서 수백만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훌륭한 원리를 그들에게 유익과 기쁨이 되도록 훌륭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백만의 성도들이 회개로 평안을 찾고 회개의 복음을 지침으로 삼아 아름답고 만족스러우며 풍요로운 생활로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율이 따르게 되고, 축복과 발전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이 죄악을 버렸을 때에만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저들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리라.”(교성 29 : 17)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곧 어디서든지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모세서 6 : 57) 기이하리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구세주의 속죄의 효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상하게 그러면서도 숨김없이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यो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 : 15-19)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가 하실 일을 다 마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보상이 그의 사랑의 용서를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고 부적합함을 느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고  
부적합함을 느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그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

로 향해 그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깨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이 우리와 더불어 노력하는 한,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또는 “나는 사정이 다르다.”거나 “하나님께서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못을 박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극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열심히 추구하여 회개의 교리를 이루는 절차를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 생과 영생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평안과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고난을 오래 견디어냄으로써(엘마서 13:28 참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모로니아서 7:47 참조)을 보여 줌으로써 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말일 성도로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온전케 되어

우리 자신을 자제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2. 회개는 죄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우리 행위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3. 죄를 버리는 과정에서는, 흔히 법과 관련된 사람, 장소, 사물 및 환경을 버릴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4.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는 감독에게도 고백해야 합니다.

5.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은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6.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버린 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세주의 속죄는 그 충분한 효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7.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열심히 추구하여, 회개의 절차를 따른다면 이 생과 영생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 토론 지침

1. 회개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에 대하여 말한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크게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책상 위에는 약간 영성한 솜씨로 만들어진 작은 찰흙으로 된 양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1971-72년에 규모가 큰 미 공군 훈련 센터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로 외로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독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의 아내 캐슬린과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집에서 특별한 가정의 밤을 갖기로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우리 거실에는 60~70명 이상의 젊은이들로 가득 찼으며 그들 중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의 기반이 안정되지 못했으며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가정에 속해 있다는 어떤 느낌을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과를 준비하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즐겼으며 가끔 심각한 토론도 나

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밤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그들은 훌륭하며 그들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밤을 몇 개월간 가진 후 나와 아내는 특별한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는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 그들의 삶에 비쳐진 가정의 밤의 의미를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색연필, 종이, 가위, 연필, 찰흙, 장난감 그 밖의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약 45분 동안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웃음으로 가득 차고 재미있는 기억들과 그리고 진지하게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매우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례로 시를 읽거나, 사진을 보여 주거나, 그림을 설명하거나 또는 자신이 같이 있으므로 편안했다는 것

## 찰흙으로 만든 작은 양

러슬 오즈먼드



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도 실제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끄럽고 거칠고 오히려 불쾌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수학상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아주 감상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자신을 마음대로 표현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결과 그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몇 달이 지난 후 그 밤이 그의 자살을 방지하게 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절망하고 있었으며 그날 밤의 경험은 그가 삶이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첫번째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가 터키에서 장거리 전화로 우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해 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존이라는 다른 청년은 아주 말이 없었습니다. 가정의 밤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항상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붙여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슬린과 나는 주중의 다른 날에 그를 초대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그가 훌륭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모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그를 염려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도

몰랐으며 그의 개인적인 가치는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며 그가 공군에서 받은 훈장보다도 더 많이 세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존은 그 특별한 가정의 밤 활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제안을 받자 그는 약간의 찰흙을 갖고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는 몸을 거의 숨긴 채 그 저녁을 내내 조용하게 거의 혼자 떨어져 앉아서 찰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한 것을 발표하는 동안 가끔 웃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을 제외하고 모두 발표를 한 후 그에게 말하도록 배를 쓰듯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 관해 매우 걱정했으며 그래서 그는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느껴지며 여러분은 나를 찾아 주었습니다. 나는 나의 감사의 표시로 이 찰흙으로 만든 작은 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후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양을 먹이라는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더 좋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존의 선물을 항상 내 책상 위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

# 우리의 결혼을 구해 낸 비결 주디스 룬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게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깨질 것인가?”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결혼 칠 개월에 임신 여섯 달의 몸으로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땀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나의 잠옷에 점을 찍었습니다.

비회원이며 미 구축함 승선 소위인 짐은 격주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소중하게 여겼고 기선에 탄 그의 친구들을 사랑했으며 임무가 끝나면 그의 아내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심정은 처량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격주마다 친구도, 가족도, 교회 친구도

없는(비활동 상태였으므로) 낯선 도시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종종 비참함을 느낀 것입니다. 아침의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점점 굵어져 가는 허리통 등이 나의 마음을 맑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함정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는” 임무가 끝나면 짐은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내를 맞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외롭고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낸 상태의 나는 그리 기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구름이 우리가 빌린 작은 방갈로 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조



차 확실치 않았읍니다. 그는 나와 나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읍니다. 결혼의 행복이란 이런 것인가? 우리는 전에 이것에 대해 토론했으나 매번 피상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실제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침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앉아 있었으며 우리의 관계는 심각하게 뒤흔들리고 있었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읍니까? 이혼이라는 낱말이 떠올랐읍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그것이었던가요? 그것은 영원한 종말이라는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나를 공포로 떨게 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곰곰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읍니다. 그때 짐이 고개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주디, 우리들의 문제는 이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오. 우리, 열과 성을 다해서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겠소? 앞으로 30일 동안 나는 당신과 당신의 필요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당신은 나와 나의 필요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 기간이 끝나서도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향상되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나는 동의했읍니다. 나는 행복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명심해야 할 일이 있소. 각자의 편견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판단하여 속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오.”라고 짐이 경고했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과 전혀 균형이 잡히지 않을 경우도 있어 실망하기 쉬우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찌기 잠자리에서 빠져 나와 메스꺼움을 이기고 어터어터한 눈을 비비고 있었읍니다. 짐은 많은 양의 뜨거운 조반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나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는 쪽을 택하는 편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조반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했읍니다. 짐은 음식 냄새를 맡고 미소를 지으면서 주방으로 들어왔읍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읍니다. 매일 아침 나는 메스꺼움과 싸웠지만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읍니다.

“여보, 아침 식탁에 어떤 맛있는 음식이 오르나 보기 위해 일어나지 않고는 못 배기겠는걸. 당신은 정말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갖고 있소.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드오.”라고 짐이 말했읍니다. 이러한 격려를 받으며 나의 아침 식사는 향상되기 시작했고 나의 열의도 또한 그러했읍니다.

짐이 바다에 나가 있었을 때 그 주 동안에 두번째 커다란 변화가 있었읍니다. 나는 매일 산책을 했고 그 지역의 식료품상과 그의 아내와 대화를 했고 고상한 책과 음악에 몰두했으며 내 마음속에 자기 연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일지 못하게 했읍니다. 금요일에는 오랫동안의 준비를 해야 했읍니다. 나는 그의 기대감 속에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문으로 뛰어나가 그의 팔에 안기는 꿈이 담겨 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달려나갔읍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껏 준비한 식탁으로 그를 인도했읍니다. 로맨스는 다시 꽃피기 시작했읍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영화가 보고 싶은데 가지 않겠소?” 사실상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로 가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약속이 기억났고 그와 함께 나가기 위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마 내키지 않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열쇠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기쁘게 하겠다는 진정한 열의를 가진다면 불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의 모든 변화를 내가 이룩한 것은 아닙니다. 짐 또한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나의 개성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아픈 팔다리를 5분간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긴장과 몸을 풀기 위해 등을 한 시간 동안 안마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는 방갈로를 떠나 햇볕을 쬐이도록 해변으로 그리고 활쏘기나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대화를 나누고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느끼는 것과 경험한 일들에 관해 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나의 신뢰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나의 자아를 떠받쳐 주기 위해 나에게 적극적인 면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짐은 겨우 23세의 젊은이였으나 그는 그 함정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에게 명령했으며, 그들은 매일 그에게 절하고 그의 명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가 무의식 중에 나로부터 동일한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30일간의 시험 끝에 그의 거칠은 행동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2주 내에 나는 소중하다는 느낌과 감사하다

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약속은 늘 상대방의 필요를 염두에 두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내가 관심을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둘에게 문자 그대로 “나는 요구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어떠한가?” “왜 그가(그녀가)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최초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이기심과 이해와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된 사



랑이 시작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에  
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무관심보다  
는 사려깊음이, 기쁨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열쇠였습니다.

약 1년 후에, 한 연로하신 분이 우리의  
공식에 자신의 지혜의 선물을 더해 주었  
습니다. “결혼을 마치 채워지기를 기다  
리는 빈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그것  
에 한 숟갈의 설탕을 넣는 것과 같으며  
이기적인 행위는 그것을 떠내는 것과 같  
습니다. 연말에는 여러분의 항아리가 가  
득 찰 것입니까, 아니면 비게 될 것입니  
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쓸쓸할까요,  
아니면 감미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비  
이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줄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결혼  
문제에 대한 징조는 발견하기 쉽지 않았  
습니다. 그후 몇 년간 우리는 때로는 우  
리의 행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그  
와 같은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나는 복음  
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  
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즐겁게 하  
기 위한 노력은 적어도 짐이 교회를 알려고  
하고 선교사들이 집에 오도록 허락한 이  
유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활동적인 회  
원이 되었으며 짐은 침례를 받게 되었고  
일년 후에 신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육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복음 원리의 기초와  
응용으로 계속 향상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짐은 신학 연구원에서 돌아  
와 그가 거기서 들은 몇 가지 용어에 대  
해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들  
이 무슨 뜻인지 아오?” 남편은 그 용어

를 말했으나 나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 알 수 없었으므로 “모르겠다.”고 대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사이에는 두렵고도, 비참한 의혹이 일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공언  
했던 이 복음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지식은 천박하고 피상  
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집중적인 연구 프로그램  
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되돌아  
가 신앙, 침례, 회개, 성신에 대해 공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휴가와 주중  
과 주말을 택해 한적한 곳에서 피로를 풀  
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며 함께 공  
부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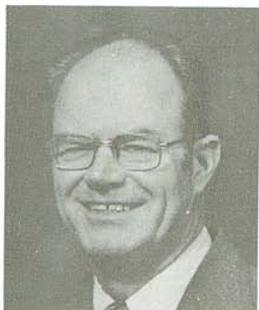
성장과 이해가 갑자기 오게 되었으며  
또한 규칙에 규칙을 더하듯 더하여졌습  
니다.

우리의 성장에 서로 보조를 맞추어 가  
며 우리가 배운 것을 가족과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관심을 희생하는  
비이기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하나가 늦으면 결국 가족 전체가 늦어  
지는 것이므로 아무도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복음 연구와 봉사는 우리들 가  
운데 중심되는 활동이며 가장 귀중한 특  
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우리의 최초의 성공은 이제 작은 것으  
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느 늦겨울 저녁에 절망에 빠져서 새로  
운 결혼의 출발을 간구하는 신혼 부부  
에게 찾아왔던 어떤 빛을 늘 감사한 마음  
으로 느끼며 살겁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비이기심과 봉사는 참으로 영속적인 결  
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비결  
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 질의 응답

다음의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점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케네스 에이치 비슬리  
교회 자재 관리부  
교통 및 국제 봉사 책임자

스태이크 고등 평의원회의  
권능을 말해 주는  
교리와 성약 107편 36절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평의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보좌인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생각이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신권의 교회 안에서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우리 교회의 다스림의 특성을 적용하지 않고서도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행정의 특성은 평의회를 통한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대관장단 평의회, 십이사도 평의회, 지역 평의회, 스테이크 부장단 평의회, 감독단 평의회 및 정원회 회장단의 정원회나 평의회. 나는 평의회들의 중요성을 알기에 충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평의회를 조직하시고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시고자 하는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스리시는 영으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견해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도 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영향력을 받아 서로 권고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영향을 받아 수행하는 평의회들의 지혜를 나타냅니다.”(대회 보고, 1953년 10월, 83 페이지)

스태이크 고등 평의회는 앞에서 언급

되지 않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가치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35년에 교리와 성약 107편이 제시되었을 때,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각기 하나씩 두 개의 고등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던 것이 처음으로 조직된 고등 평의회였으며 그 조직의 회의록이 10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의 사록은 특히 재판의 기능에서,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고등 평의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 평의회가 조직되었을 때(1834년 2월호) 고등 평의원이 하나뿐이었으므로, 커틀랜드 고등 평의원은 대관장단이 관리했으며, 교회 전체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등 평의회는 참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교성 102:9-10 참조) 그 고등 평의회에 관하여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이 예언자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커틀랜드에서 고등 평의회를 대관장단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당시 그 고등 평의회와 미주리에 있던 다른 고등 평의회 외에는 다른 고등 평의회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틀랜드에 있는 고등 평의회는 요셉 스미스와 그의 보좌들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기능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들의 평의회에서 다루게 되는

원리 중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주께 간구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설교집, 19:241)

이와 같이, 교회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커틀랜드 고등 평의회는 미주리에 있는 고등 평의회나 오늘날의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관장단이 관리하던 커틀랜드 고등 평의회는, 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제반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평의회 회장단[대관장단]이나 순회 고등 평의회[십이사도]와 똑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평의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교성 107:36 참조)

다음 절(37)에 보면, 주님은 대관장이 관리 역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미주리(시온)에 있는 고등 평의회에 대하여 “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제반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시온의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십이인회와 똑같은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고등 평의회와 “시온의 스테이크를 관리하는 십이인회”로 일컬어지는 기타 다른 스테이크 십이인의 고등 평의회는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임된 것이었으며 예언으로 알려졌습니다.(교성 65:2 참조)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있는 스테이크가 아닌 다른 스테이크들이 조직될 것이라

## 질의 응답

스테이크가 조직되면,  
고등 평의회는  
스테이크를 통치하는  
스테이크 부장단을  
돕기 위해 조직됩니다.

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는 주님께 교리와 성약 101편 21절에서 “성도들을 용납할 여지가 없게 되는 날이 이르면……나는 저들에게 지정하여 줄 다른 장소를 가지고 있나니, 저들은 시온의 휘장 곧 시온의 힘을 위하여 스테이크라 불리우리라.”고 명백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각 스테이크가 조직되면, 고등 평의회는 스테이크를 통치하는 스테이크 부장단을 돕기 위해 조직됩니다. 이러한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대관장단이나 십이사도 평의회의 결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의 관할권은 그것이 조직된 스테이크에 한정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상임 고등 평의회를 막론하고 전체 교회에 나가 그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이사도 평의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임 고등 평의회든지 시온 또는 시온의 스테이크의 한 곳에서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교회 정사, 2:220)

“고등 평의회는 십이사도 평의회나 십이사도의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이사도가 잘못을 행했을 경우는, 계시에 의하여, 교회 전체에 대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 전체 평의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책, 285페이지) \*



로이 더블류 목사  
협회 검토회의 대표

우리는 일년치의 식품, 의복 및  
가능한 곳에서는 연료까지도  
비축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과

니파이삼서 13장 26절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니**파이삼서 13장 26절(“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시나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12장 22-34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도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산상수훈(마태복음 6:25-34 참조)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이 구절은 교회 전체 회원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교사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과를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보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교회의 총관리 역원이나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

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나 지금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누가복음 12 : 33)……현재나 미래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름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세주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시험의 일부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주님은 기대하십니다.(교성 75편)”(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 교리 주해서, 3권,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5~73년, 1 : 243)

지난 40여 년에 걸쳐 비축에 관해 우리 지도자들이 경고한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권고의 말씀은 거의 모든 연차 대회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교회의 관리 감독인 빅터 브라운 감독이 198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는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자신의 필요 사항을 충족케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 교회는 회원의 수고를 도와 난국을 이기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40여 년 동안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라고 가르침을 받아 왔던 것들—예를 들면, 일년 동안의 식량, 의복 및 가능하다면 연료를 비축하고 저축하며, 기본되는 생산 기술을 익히는 것 등—을 성도들이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권고는 근래 수년 동안 해마다 적어도 두번씩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관리 역원의 이같은 권고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기름을 충

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 25 : 1-13 참조)”(성도의 빛, 1980년 11월호, 130 페이지)

말일성도인 우리는 발을 가꾸고, 바느질을 하고, 가재 도구를 만들라는 충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통조림법, 식품 냉동 및 건조법을 익히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실질적, 경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곳에서는, 일년치의 식품, 의복 및 연료를 비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얼마간의 현찰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세나 저당금은 우리들 대부분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합니다. 실직 상태로 있을 때는, 질병, 사망 등 월례로 청구서를 지불할 필요가 갑자기 또는 계속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며, 계획하지 않은 의료비, 법적인 비용, 장례비 또는 기타 경비가 들게 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검약하는 생활’로서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 재정 문제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준비, 가정 생산 및 비축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정서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복지 사업 :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7페이지)

우리는 또한 선교사로 일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준비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부름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잠시 동안, 일상 생활을 제쳐놓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우리의 선교 사업에 바치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의 대담



**질문 :** 오늘날의 상호부조회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3월 17일을, 141년 전인, 1842년에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로 개인적인 발전과 봉사할 기회와 선택의 여지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자매들로, 상호부조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으뜸되는 원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더욱 가깝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교성 88 : 79)을 알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모든 자매들에게 새롭게 축구되는 것은 배움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그러한 배움의 길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 :** 오늘날 상호부조회에 속하는 자매는 얼마나 됩니까? 회원 수의 증가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마울라 알 밀튼버거 자매(본부 재정 서기) :** 성장의 형태는 흥미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호부조회는 1842년에 조직된 모임에 18명이 참석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후인, 1942년에는, 회원 수가 115,000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상호부조회에 속했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는 1,60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942년에는 회원의 91퍼센트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자매들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 신권에 관한 상호부조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미스 자매:**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일을 하는 신권을 돕습니다.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신권 지도자는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상호부조회의 일을 위임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규칙적으로 신권 지도자와 만나 계획서와 추천서를 제출하고, 진행 사항이나 문제점을 보고하고, 권고와 지도를 받습니다.

그녀는 협의 평의회와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일하며, 상호부조회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도록 돕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 특히 상호부조회가 감당해야 할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역할은 자매들의 필요가 충족되는가를 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일이 신권회를 돕고 협동의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자매들은 그들이 청녀 프로그램과 초등협회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관련된 어떤 태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스미스 자매:** 그렇습니다.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매들에 대하여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

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초등협회와 청녀회에 종사자들이 일요일의 공과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라도 상호부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리언 알 보이어 자매 (본부 회장단 제일 보좌):** 예를 들면, 모든 자매들은 평일에 갖는 활동에 참석하고, 계획, 실습 모임,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와드의 청녀회 및 초등협회 회장과 협의했습니다. 초등협회와 청녀회 교사들은 그들이 상호부조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들려줄 수 있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협의를 통해서, 초등협회 교사들을 위한 자선 봉사는 초등협회 회장단이나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초등협회 역원으로 일하며 동시에 상호부조회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일하는 데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며, 모든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되며, 자매들이 가사 모임이나 기타 활동에 함께 모임 때 다시 한 번 함께 하는 데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질문:** 청녀들이 청녀회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기면서 적응해 가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스미스 자매:** 18세가 된 자매는 매우 성숙하여 지적, 사회적 및 직업적 기회와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면을 이해하게 되면, 곧 큰 흥미를 느

깁니다. 우리 와드에서 우리는 청녀들에게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이것이 주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신성한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그들은 상호부조회의 지도자 및 교사로 부름받으며, 교회 여성들이 141년 동안 물려받은 유산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호부조회로 옮겨 가는 것은 청녀들의 삶에 중요한 과도기로서, 우리는 이러한 자매들을 상호부조회로 반가이 영접하여 그들이 충실한 친구들과 함께 하게 하며, 창조적인 표현, 영적 및 지적인 성장 및 봉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 *검약하는 생활은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검약하는 생활을 하도록 돕습니까?*

**스미스 자매 :** 오래 전부터 상호부조회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 검약하는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검약하는 생활의 기본 원리는 정기적으로 상호부조회 공과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은 가사 모임 소단위 공과반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은 이러한 원리를 익히는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며, 상호부조회는 모든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 :** *스미스 자매님, 자매님은 “예술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 아름답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서 그와 같이 훌륭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스미스 자매 :**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표준을 정함으로써 훌륭한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표준을 활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훌륭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며 공과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훌륭한 방법을 토론해 줌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해 주며, 가사 모임과 과제는 우리에게 재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재능을 향상시키고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질문 :** *방문 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스미스 자매 :** 방문 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 자매들에게 저들의 감정이 성스러운 곳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방문 교사가 자매들을 도와 가정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방문 교육은 개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 침례받은 자매들이 교회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문 교육은 많은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줍니다. 모든 자매들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활동적이거나, 반쯤 활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이거나, 독신이거나, 기혼자이거나,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이거나, 그녀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정에 가져 와 복음의 메시지를 취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상호부조회의 역할은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되는가를 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일은  
신권회와 보조하고  
협동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 민감한 여성은 자칫하면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필요 사항을 잘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감독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질문 :** 방문 교육 준비 모임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셀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이 보좌) : 방문 교사 준비 모임에서 전에 가르쳐진 전달 방법이 지금은 제5주 자선 봉사 공과로 병합되어 모든 상호부조회 회원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초점은 자매들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개념에 있지만, 그것은 자선 봉사와 방문 교육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공과가 자선 봉사의 훌륭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주님의 종에게 필요한 속성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조할 것입니다.

방문 교사들은 그들이 방문을 마친 것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그 자매는 작은 규모의 와드에서는 방문 교육 자선 봉사 임원이 되겠지만, 큰 규모의 와드에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게 되는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긴급한 필요 사항과 기밀에 관한 사항은 방문 교사가 직접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방문 교사로 일하는 한 쌍과의 개인 구두 접견은 회장이나 보좌가 최소한 일년에 두 번씩은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접견시에 방문 교사가 자신의 부름을 설명하고, 회장은 상호부조회 회장들의 복지를 알고, 와드내에서 방문 교육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흔히 초등학교와  
청년 지도자들이  
들려줄 수 있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입니다.

**질문 :** 밀튼버거 자매님, 전에 본부 회장단과의 접견에서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회장과 서기와의 밀접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밀튼버거 자매 :** 나는 회장과 재정 서기는 서기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 가지 집행 계획의 세부 사항을 수행해 나가도록 도움으로써 밀접하게 일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기는 회장단의 시간을 절약하게 해 줍니다. 서기가 회장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방법에는 회장에게 미결제 업무와 사전 약속 및 결정 사항을 상기시켜 주고,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확인시키는 등의 일이 포함됩니다. 모임 후에, 회의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항목이 완결되었으며, 누가 지명을 받았고, 어느 항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또한 서기가 맡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의 회의록도 지난 모임에서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업무도 잊혀지거나 잃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기는 어디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가를 알고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봄으로써 회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녀는 회장의 능률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질문 :**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미스 자매 :**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평가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말일성도 여성은 어디서 그녀가 영적으로 되는가, 어느 면에서 영적으로 되기를 원하는가

와 어떻게 그 영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시대의 자매들, 평원을 횡단했고, 브리감 영 대관장의 요청으로 밀을 모았던 자매들이 필요로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즉 역경에 처해서도 굽힘없는 인내력과 선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 교회가 현재는 상당히 국제적인 면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상호부조회가 그들의 문제점에 다양하게 대처하도록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스미스 자매 :** 나는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몇 가지 지침을 그들에게 보내지만, 우리가 보내는 지침은 중요한 것이므로 그들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전세계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결합시킵니다.

**질문 :** 가정, 교회, 사회, 전문적인 활동 및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은 복합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로 좌절감을 느끼는 자매들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스미스 자매 :** 인간이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면 생활이 재미있게 되지만, 너무나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에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그대로 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랑은  
주님의 종에게  
필요한 속성인,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여성들이 삶을 재미있고 보람있게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수공예의 일이든, 특별한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학습 경험에 관한 일이든,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그것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

---

---

# 네 부모를 공경하라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열 일곱 살에 무슨 일을 잘못하여 부친이 이유를 들어가며, 나를 꾸짖기 시작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나는 기분이 상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만 해

두세요. 십대가 되고 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어요.”

부친은 정감있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허, 그래, 이런 일은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처음이구나.”

부친은 부지중에, 내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대인 나는 부모님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부모님들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참을성있게 대해 주시기를 내가 기대하듯이 그분들에게 내가 참을성있게 대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 : 38) 그는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 : 12)고 상기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이 계명은 종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고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 : 16)라고 묻는 사람에게도 되풀이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반복하신 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19 : 19) 지극히 지당한 배어놓을 수 없는 계명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인간됨은 부모의 반은 것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마태

복음 18 : 3) 되라 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마태복음 19 : 14)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대적 순결과 성실을 강조하고, 기만이나 교활함은 완전히 배제하여, 아기들이 이 지상 생활로 태어날 때 갖추었던 모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기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는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르치며, 훌륭한 태도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들의 자녀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친은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이 성찬식에서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있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감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내 친구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부친이 감독으로서 훌륭하게 봉사했으며 가족이 실상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부친이 감독이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했을 풍부한 영적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므로 부친을 존중했습니다. 아들은 그가 이 훌륭한 사람의 추억을 존중하듯이, 부친과 부친의 교회의 부름을 존중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어란 소년, 소녀나 그 자녀들이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 : 22)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용서받기를 기대한다면 부모의 실수를 용서할 그와 같은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대의 한 친구는 아버지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그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이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심장 마비를 일으켜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부친을 얼마나 공경하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거친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을 수 없이 되뇌었습니다.

나의 재학 시절 그리고 그후 유타 대학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부처의 따님 바바라 벤슨과 그 외의 다른 자녀들을 알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바라나 보니, 마크나 베스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품고 있는 깊은 공경심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한번은 바바라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깊이 존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 달 전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운동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운찬 젊은이는 축구 게임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에게 가장 위대한 동기가 된 것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고 계셨거든요.” 그는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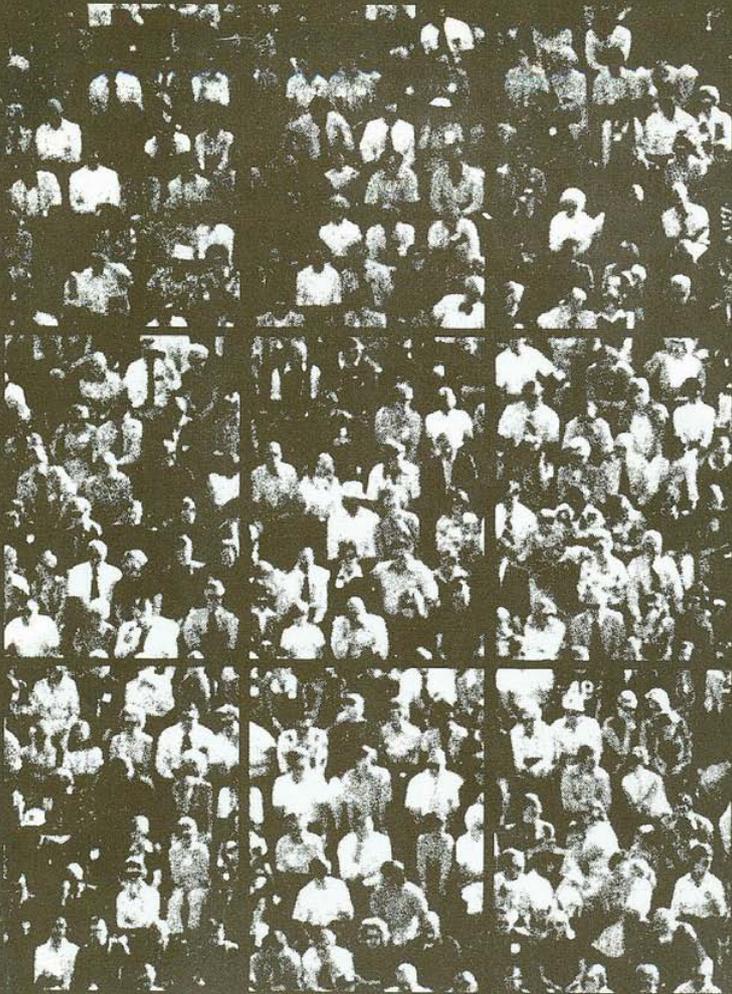
구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들을 공경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때로 그 자녀들이 밤에 늦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귀가 시간이 늦게 되면 전화를 해주거든요. 나는 항상 그들이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녀의 자녀들은 모친을 공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에서 한 여학생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가를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그들에게 충고를 구했습니다. 주의깊게 충고를 듣고 난 그녀는 그녀의 남은 인생에 영향을 미친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공경이란 단순한 낱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존경심과 찬사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참을성있게 사려깊게 주어진 가르침에 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했다면 가족들은 더욱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서 흔히 인용되고 있는 “나의 사람됨 또는 앞으로 내가 바라는 인간상은 모두 천사와 같으신 어머니의 덕분입니다.”라는 말씀은 교회의 모든 십대들도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간됨과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인물상은 부모님이나 부모역을 맡으신 분의 인내심 많은 권고의 언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여 매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



여러분에게  
속한 1,000명이  
여기 있습니다.

### 물모나드

물몬은 세상 사람 1,000명당 1사람의 비율로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그 1,000명을 개종시키는 일을 돕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맡은 1,000명을 개종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마친다면,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1,000명을 개종시키는 일을 도울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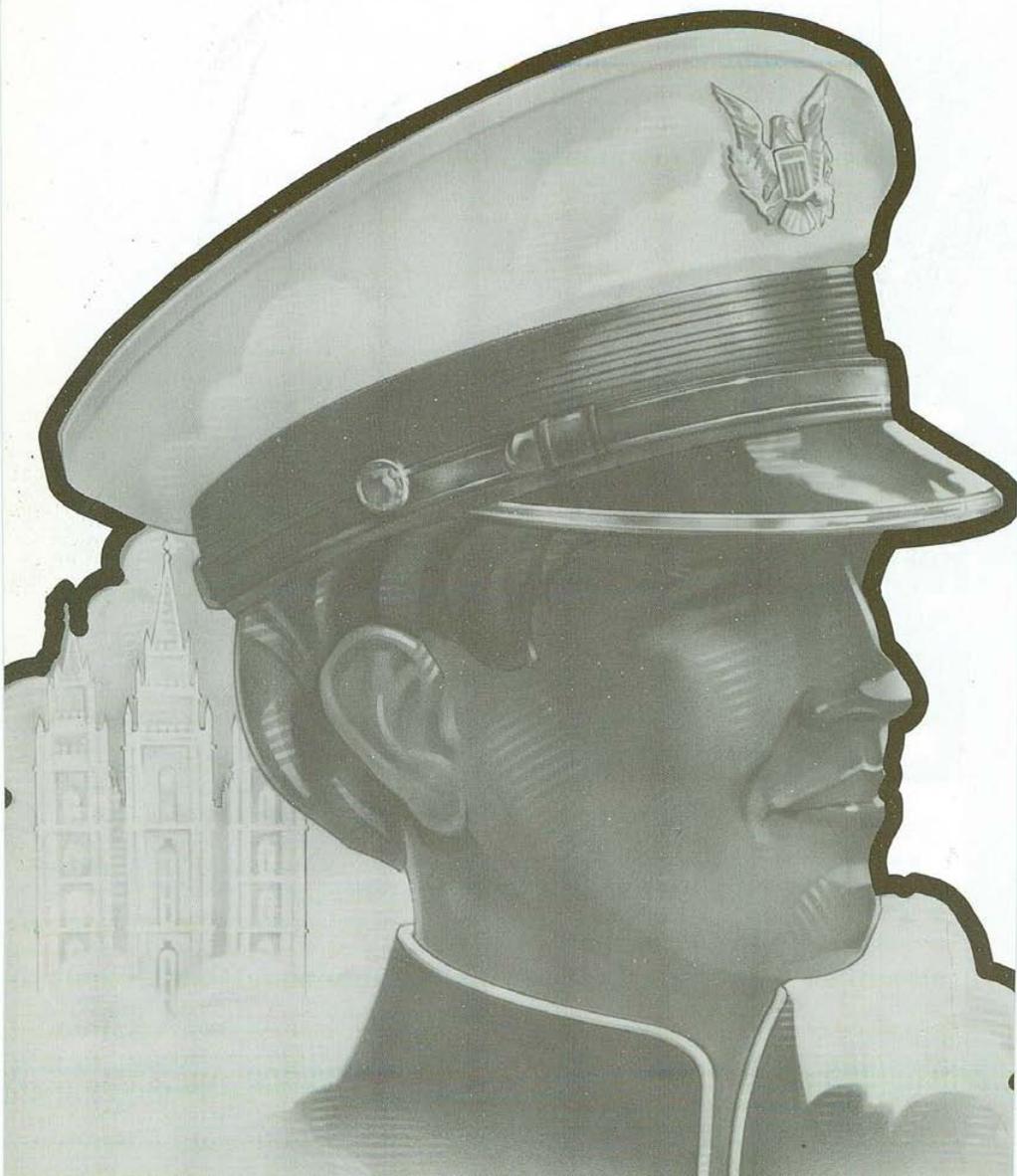
---

# 코디의 꿈

---

코디 카알은 겨우 네 살이 되었을 때부터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코디는 십일조를 넣어 두는 우주 비행선처럼 생긴 작은 저금통을 갖고 있었다.

리차드 엠 룬니



그가 동전을 집어 넣을 때마다 마치 로켓이 우주 비행선을 이륙시키기 위해 불을 뿜듯이 빛이 나왔다. 코디가 좀더 나아가 들었을 때 학교 친구들이 코디가 우주 비행사가 되려 한다고 놀렸지만 그의 태도는 진지했다. 우주 비행사가 출발을 하려 할 때쯤 되면 코디는 비행의 모든 순간마다 귀를 기울였다.

코디의 다른 주요 관심사는 자연히 천문학이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망원경을 받았다.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별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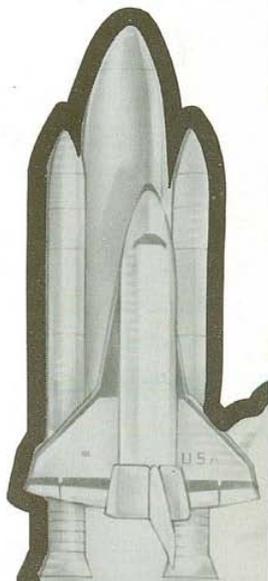
“밤 하늘은 항상 황홀합니다. 우주 천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우주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가끔 다른 미개척 지역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탐험하기 위해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유일한 미개척 지역은 우주 밖이며 거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코디는 학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반과 전자학반을 선택했다. “나는 전자학이 우주 탐험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도록 권유했고 마침내 나는 전자학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주에서 가진 전자학 경연에서 결승에 오른 선수가 되었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코디의 목표 중의 하나는 공군 사관 학교 생도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고등 학교에서 진급해 가면서 목표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모님과 의논하며 기도했다. 그는 인생의 세 가지 큰 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두번째는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

이었다. “나의 모든 생애에서 우리는 선교 사업과 선교 사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교 사업을 간다면’이 아니라 항상 ‘네가 선교 사업을 갔을 때’입니다.” 세번째 큰 목표는 신전 결혼이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우리의 침대 가장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차례로 다 음과 같이 묻습니다. ‘너는 일생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은 내가 바른 길을 계속 가도록 실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가끔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똑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질문이나 문제점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코디의 목표 중 두 가지는 서로 일치되지 않았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위해 그는 사관 학교를 1년 다니다 단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교 사업 때문에 결석을 허가해 주는 일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선교 사업을 떠난다면 그는 아마 학과 과정에서 빠질 것이다.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입명 받아야만 하지만 그가 단념했다는 단순한 사실로 사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코디는 준비를 계속했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갖기 위해 매일 6~8킬로미터를 뛰었다. 그는 고등 학교 3학년 때 하루 종일 대학 입학 시험을 치렀다. 거기에는 미국 대학 검사(ACT), 학교 적성 검사(SAT), 공군 기술자 적성 시험, 신체 조건 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장래 지도력에 관한 접견과 평가도 받았다.

사관 학교에서의 일년을 단지 선교사 부름을 기다리면서 보내진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4달이 지난 후 나는 이것이 내 생애에서 하고 싶었던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성신을 통해 받은 확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적당한 시기와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며 그 계획은 재확인했습니다.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올바르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은 나에게 참으

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난 후 코디는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으로 재 다짐해야만 했다. 사관 학교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간을 보낸 후 코디는 큰 맘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것은 또한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그의 오랜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8년이나 일찍 단념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에 관해 번민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3월에 코디는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과 선교사 접견을 가졌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SERE 훈련(생존, 은폐, 저항, 탈출)을 포기했다. 사관 학교를 떠나려는 다른 생도들과 같이 코디는 여러 다른 고문들 그리고 장교들과 접견을 가졌다.

“그들 모두가 처음에는 오로지 나에게 질문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는 이유를 말하자마자 그들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일성도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성명이 선교 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그가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써 놓은 해명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증인으로서 종이에 서명을 한 장교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했다. “나는 생애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결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당신이 믿는 것입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코디는 대답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

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의 해명서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전에 거의 느껴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코디는 설명했다.

5월에 코디는 스위스 쥐리히 선교부로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 그는 8월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다.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순종은 몸에 배어 있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재입학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했지만 마침내 그는 걱정을 버리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 게다가 선교 사업은 선교 사업대로 해결할 것이 있었다. “처음 6~7개월 동안 나는 나 자신이 그저 선교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교회가 참되며 선교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만큼 선교 사업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학창 생활에 대한 향수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업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가량 지난 후 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더 행복해졌고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열망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학창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선교 사업은 회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집에서 온 편지에는 사관 학교를 포기하고 선교 사업을 나갔던 또 다른 생도인 데드 파슨즈가 재입학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은 코디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코디는 미국 군관 임용에 관한 필요한 시험을 치렀다. “선교부장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영예롭게 선교 사업을 했으며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받은 얼마 후에, 코디는 자전차와의 정면 충돌로 코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사관 학교의 입학 자격은 엄격합니다. 그와 같은 충돌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비행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 눈이나 이마 혹은 이에 부딪혔다면 아마 실격됐을 것입니다.”

코디는 그가 보호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시험 결과는 코디가 처음 응시했을 때보다 더 높은 점수였다. 그것은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아주 이로운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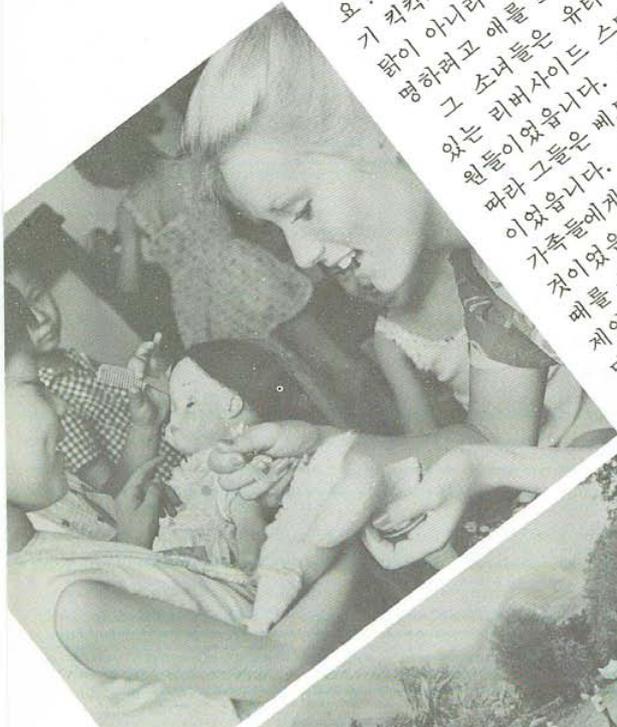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다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코디는 말했다.

코디는 대학 평의회에 의해 재임명되었다. 그는 그의 신앙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이다.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2주일 만에, 그리고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떠난 지 2년 만에 코디 카알은 다시 한번 공군사관 학교에 들어갔다.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그의 꿈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전에서 결혼을 하며, 평생 선교사가 되려는 그의 다른 목표와 같이 아직도 그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것이다.

\*

# 봉사의 달콤한 맛

제니트 토마스  
 작  
 은 페트남 여인은 슈퍼마켓 냉장고  
 에서 겨우 얼어 붙은 칠면조를 그  
 의 남편이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는 동안  
 옆에 서 있던 두 명의 미국 소녀들은 귀  
 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닭인가  
 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갑작  
 히 킁킁거리며 웃고는 이 큰 새가 초대행  
 닭이 아니라 칠면조라고 쉬운 영어로 설  
 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있는 리버사이드 스테이크 하우스에  
 원들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에  
 따라 그들은 페트남 가족을 돕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그들의 입무 중의 하나는  
 가족들에게 미국 슈퍼마켓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식품점에 갔을  
 때를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일 와드에서 온 로리 스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너무 많이 웃  
 었습니다.”



난민을 원조하는 일에는 많은 젊은 여성들도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살 적당한 장소를 찾고, 의복과 침대를 모으고,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키거나 수가 얼마 안되는 가족에게 도시 구경을 시켜 주는 것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고마와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있습니다.”라고 로리는 말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스테이크에서 온 소녀들은 봉사의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봉사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친구 사이의 보살핌과 도와 주는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기쁨에 넘친 봉사를 수많은 분야에서 계속해 온 솔트레이크 계곡의 12스테이크는 그들의 봉사 계획에 대한 결과를 청녀 창립 1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과거와 현재 청녀 본부 임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심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부터 사회의 노인들을 돌보는 일 때까지 뻗친 폭넓은 봉사였습니다.

솔트레이크 이스트 밀크리크 4와드에 있는 소녀들은 그들의 선행을 사탕 병에 있는 사탕 수로 셀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매주 그들이 그 주에 했던 봉사의 수대로 병에다 사탕 하나씩을 집어 넣었습니다. 병이 사탕으로 가득 찼을 때 소녀들은 봉사의 달콤함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 가득 차면 소녀들은 특별한 가정을 뽑아 가득 찬 병이 뜻하는 것과 사탕 하나하나가 자선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병을 그들

에게 선물했습니다.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스테이크도 심신 장애 청소년들을 돕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11와드에 다니고 있는 수잔 하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청녀반을 가르치면서 돕고 있어요. 심신 장애 소녀들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아주 특별하여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홀러데이 스테이크에 있는 많은 소녀들은 심신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심신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에서는 소녀들은 젊은 사람들과 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일 와드의 찰리 닐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느꼈으므로 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했다는 느낌으로 그곳을 나오곤 했습니다.”

몇몇 스테이크에서는 그들의 지역에 있는 노인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북 스테이크에 있는 각 청녀반은 1년 동안 모실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양할아버지, 양할머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모시고 다니거나 집안 청소를 도왔습니다. 또한 소녀들은 노인 회원들의 개인 역사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테이프로 녹음하고 각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충분한 여분을 타이프로 복사했습니다.

유타 지역 옥든에 있는 스테이크들은 성탄절 기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에 방문한 수천의 방문자

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세계 나라들의 고유 의상을 입힌 천으로 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인형들은 템플 스캐어에 있는 남쪽 방문자 센터와 북쪽 방문자 센터 양쪽의 성탄절 소나무에 넓은 빨간 색 장식띠로 매달립니다.

소녀들마다 인형에 표현한 나라에 대해 연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실에 가깝게 의상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간단한 기록을 자신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인형에 붙였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인형들은 이스라엘에 보내지고 거기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랍 고아들에게 인형이 전달되었습니다. 우송된 인형을 첫번째로 받은 사람은 이크라스란 이름을 가진 안경을 낀 조그만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새로운 인형을 갖고 놀 때나 밥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하루 종일 함께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케년 스테이크의 도날린 루이스 자매는 봉사를 하는 것이 또한 자신에 대해 좀더 나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와드에 있는 노인 회원들을 위한 봉사 계획에 참여한 후 도날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솔트레이크 홀러데이 스테이크의 카라 벨슨은 봉사가 미치는 끝없고 심오한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카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봉사란 주면 받아야 한다는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같이 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봉사의 달콤함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필요한 사람을 채워 주며 주는 사람을 만족하게 합니다. 봉사하는 달콤함을 맛봅시다.

여러분과 여러분 반의 청소년들, 정원회, 스테이크 혹은 지방부는 여러분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세계 청소년들에 의한 가장 훌륭한 봉사 계획 이야기 중 몇 편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사회, 병원 및 고아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을 도울 계획이 있는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잘 나온 사진(흑백이면 더 좋음)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많은 세부 사항들 특히 봉사한 사람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느낌과 반응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늦어도 1983년 6월 30일까지 번역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필히 타자로 정리하고 각 사진은 뒤에다, 그리고 테이프는 종이 한 장을 붙여서 돌려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타자로 기록하거나 분명하게 기록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매 사진마다 번호를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에 각 사진의 번호와 제목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동봉한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기재해 주고 이름을 완전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진 뒤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기록하면 자국이 사진의 앞면까지 새겨져 사진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

# “특별하게” 되는 것이 잘못인가요?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훌륭한 성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구는 특별히 젊은이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모든 젊은이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복음의 회복에 관한 지식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에 엄격히 일치되는 생활을 하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식에 의해 지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봉되고 축복받게 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게 성역을 베푸는 직

분과 신권을 지니리라.”(아브라함서 2:9)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의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름을 받고 장로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부터 그것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우리는 침례와 확인의 축복을 받으며 후에 적절한 시기에 생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고 지시해 주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젊은 형제들은 아론 신권을 받으며 후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습니다. 자매들은 그들의 집에서 또는 와드에서, 결혼에서, 신전에서 신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생에서 자신의 아버지나 병자 축복이나 그 외의 다른 것을 통해 수많은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해 줍니다. 만일 내가 이것은 그들이 “이상한 자”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면 젊은이들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칭찬의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 “특별하게 되는 것이 잘못인가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두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이라고 알려지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경험은 내가 제2차 대전 중 공군에 복무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나는 전투 지구로 가지 않았을 때도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과 4년 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군인 동료 가운데는 교회 회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비행 기술을 익혔고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동료와의 관계는 보편적으로 좋았습니다. 내가 사귀고 있었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훌륭하였으며 서로 놀리기도 하고 농담을 하였지만 내가 말 일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생활 방법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존경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군대 경험은 선교사를 마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내가 전에 선교사 곧 그들에게는 목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막사에서 종종 나를 놀라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테네시 출신의 한 젊은 병사 옆에 누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목사는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어서 우리는 감히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

는데, 이 막사에 그러한 분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친구 가운데 몇몇은 말일성도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위 곧 흡연, 음주, 신성 모독, 부도덕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한번은 선교사의 생활에 별로 달가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비행 적부 심사라는 시험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날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는 미합중국 공군에서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짓고 나에게 와서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어. 나는 기도가 필요해.”

어느 날 나의 교관은 대기실에서 우리들 다섯 명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동 연습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칠판으로 갔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나에게 건네 주면서 그가 시범을 보이는 동안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생전 처음 담배를 쥐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칠판에서 시범을 마치고 나와 담배를 도로 가져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거터, 담배를 갖고 있으라고 해서 미안하네. 자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데, 그렇지 않은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네는 술도 마시지 않지?”라고 물었습니다.

“예, 마시지 않습니다.”

“차는 마시는가?”

“안 마십니다.”

“커피는 마시는가?”

“안 마십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는 다른 네 명의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걸세.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보다 건강하게 될 거야.”

그와 같은 경험으로 나의 사기가 양양되었음을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어느 날 나는 중대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23세였고 그분은 40세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예절을 갖추고 있었으며 공손한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활주로를 서서히 굴러가고 있을 때 거기에는 중대장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하나의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사를 쳐다보고 나에게 불쾌한 음성으로 “도대체 저 XX가 어디로 가는거야!”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세우고 엔진을 끄었습니다.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오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뱅거터, 내가 거기서 그런식으로 말해서 미안하네. 나는 잠깐 동안 비행기에 함께 탔던 사람이 자

네라는 사실을 잊었다네.”

물론 나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 내가 달리 생각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은 자주 나의 생활 방식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표준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나의 신진가먼트를 벗어버린다거나 말일성도가 된 것을 죄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훈련 중에 몇 번 반원들과 함께 송별 파티 또는 다른 특별한 행사와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술이 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식사 전에 나에게 와서 파티가 끝날 때쯤이면 그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 모르니 그들을 위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느 비회원도 결코 나에게 나의 표준을 버리도록 설득하려 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의 원리를 버리도록 강요하거나 나의 표준을 비웃었던 유일한 자들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교회 표준대로 살지 않았던 회원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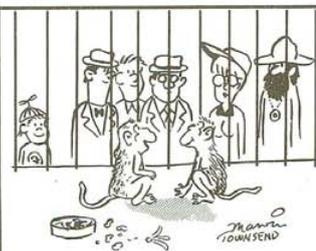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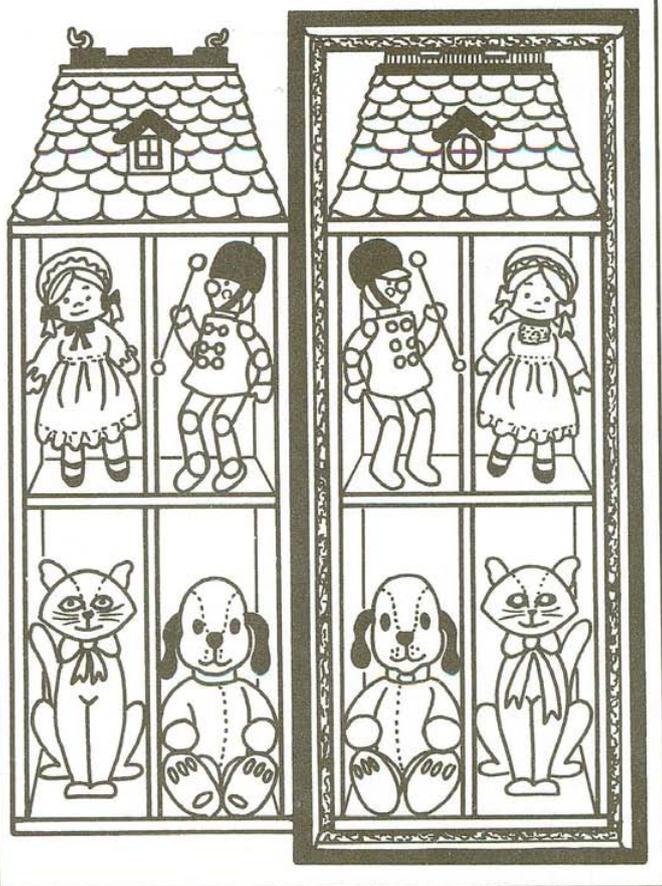
나는 진리와 의의 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압니다. 그들의 인품과 평판을 값지게 여기는 자들은 택함받은 세대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특별하고 고귀한 백성의 대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특별한 젊은 이들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그들의 기초는 확실합니다. \*



# 심심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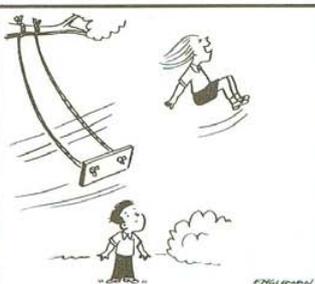
## 불안정한 반사

금이 간 것같이 보이는 거울 속에 있는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것을 찾으십시오.



로버타 엘 페어를

원숭이들이 우리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와! 이것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구나.